**연중 제32주일(2018년 11월 11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이번 주일은 우리 캠든 교구 주교님께서 특별히 성소 주일로 정하셔서 성소에 대해서 강론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소’는 ‘거룩한 소명’, 즉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vocation.’  
  
좁은 의미로는 사제 성소나 수도 성소를 주로 의미하지만, 사실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넓은 의미로 볼때, 평신도 사도직 성소와 혼인 성소도 다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예요. 내가 단순히 성당 가기 싫고 좋고 하는 문제로 신앙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성당 갈까 말까 하는 문제와는 다른 겁니다. 지금은 그저 ‘성당 갈까 말까, 오늘 날씨도 춥고 귀찮은데, 성당 그냥 가지 말자’하고 단순하게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이 다음에, ‘천국에 갈까 말까, 영원한 생명을 받을까 말까, 에라 귀찮은데 까짓거 천국 가지 말고, 영원한 생명도 그냥 대충 다음에 받지 뭐...’하고 선택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신앙 생활은 대충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면 늦을 지도 모릅니다.  
  
저한테 “왜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까?” 혹은 “왜 신부가 되었습니까?”하고 물으면, 저는 자신있게 이렇게 답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톨릭 신자가 되었고, 진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신부가 되었습니다!”라고.  
  
우리 모두는 진짜로 행복해 지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런데, 행복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행복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 “글쎄요.”하고 대답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행복’을 잡으려고 머리터지게 삽니다.   
  
마치 돈 많이 벌고, 학식과 지위가 조금 더 높아지고, 명성이 조금 더 널리 알려지고, 그리고 자식들이 잘 풀려서 성공하고... 그러면 당연히 행복할거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 줄까요?   
  
저는 아주 어렸을때 무지개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무지개를 보면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웠어요. 어린 마음에 그냥 넋을 잃고 무지개를 보곤 했었습니다.   
  
한 네 다섯살 쯤 되었을까... 한 번은 어느 여름날,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서, 언덕 너머에 쌍무지개가 아주 선명하게 뜬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가깝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 무지개를 따라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무지개를 만져볼수 있거나 조금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저 무지개만 바라보고 신나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뛰어 가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가도 거리가 좁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도 ‘가다보면 가까워 지겠지...’ 하고 계속 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무지개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방금 전까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저 멍하니 하늘만 쳐다 보았습니다. 무지개는 간데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순간 정신을 차려 보니까, 엉뚱한 길에 서 있었는데, 거기가 어딘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길은 잃어버리고, 이미 저녁이 되어서 주위는 깜깜해 지기 시작하고... 무섭고... 울다가... 집에서는 애 잃어버렸다고 난리가 났던 모양입니다. 제가 우리집 장남에 장손인데...  
  
저의 아버지가 저를 찾아낸 것은 다음날 새벽, 차로 두시간 정도 떨어진 어느 파출소에서 잠들어 있는 저를 발견했답니다. 울어서 눈물에 콧물이 범벅이 되고, 얼굴과 옷에는 온갖 때자국을 시커멓게 묻히고서 지쳐서 잠들어 있었죠. 세상에 그런 거지 아이가 없었답니다. 지금도 가족들이 모이면 그때 그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제 어린 시절 아주 이상한 경험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지개를 쫓다가 길 잃어버린 기억...  
  
크면서, 저는 제가 쫓는 행복이, 어릴때 쫓아갔던 그 무지개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쫓아가도 잡을 수 없는 것. 그리고 잡으려 마냥 정신 없이 쫓아가다가는 길을 잃고 마는 것. 그것이 무지개와 같은 행복입니다. 막연히 보기에는 멋져 보이는데, 잡을 수 없는 것... 행복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행복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았던 시절이 있었지요.   
  
저는 스물 여섯 살때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4학년 때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는데, 신앙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뭔지도 모르고 쫓았던 그 행복이 제 마음 속에 서서히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행복해 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속에 이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제 성소의 부르심을 느끼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신부가 되서 살면서, 어릴적 부터 쫓았던 그 무지개, 그 행복, 그것을 이제 찾은 겁니다. 제 마음 속에 이미 있었던 거였어요. 행복은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 주셨어요.  
  
하느님께서 주신 참된 행복. 세상이 주는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다운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것. 그 참된 행복에 대한 부르심. 그것이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 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거룩한 부르심’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한 가난한 과부가 동전 두닢을 헌금 바구니에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정성과 희생어린 마음을 보신 겁니다. 자기도 가난하지만,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 놓은 겁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수난과 죽음을 맞이하러 예루살렘에 막 도착했을때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마지막 남은 동전 두닢을 바치는 것은 예수님의 운명을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희생으로 남은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예수님의 운명이 이 가난한 과부의 행동과 흡사한 비유가 되었던 것이죠.   
  
믿음, 희생, 그리고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서로 나누고, 또 서로 잘못한 사람들을 관대하게 용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이해 관계 따지기 좋아하고, 손해 보기 싫어하는 똑똑하고 계산적인 머리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때 더 아름답고 행복해 집니다.   
  
날씨가 쌀쌀해 졌습니다. 낙엽이 다 떨어지고, 썰렁해 지는 늦가을... 마음 따뜻한 사람이 그립고, 마음에 사랑 가득한 사람이 보고 싶은 계절입니다.   
  
머리로 따지고, 계산적으로 살기 보다는, 마음 속에 따뜻한 온기와 사랑 가득 품고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립고,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되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의 부르심,’ ‘행복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 즉 ‘성소’ 입니다.